 기획재정부		보도자료	
보도일시	배포시	배포일시	2019. 4. 23.(화) 09:00
담당과장	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김명규 (044-215-2750) 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장 이호섭 (044-215-4570)	담당자	성민혁 사무관 (044-215-2752) brighthyuk@korea.kr 이동훈 사무관 (044-215-4574) ldh5758@korea.kr
	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장 이희준 (044-205-3902)		김효빈 사무관(044-205-3904) khbkhb89@korea.kr
	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장 윤성혁 (044-203-4330)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장 박덕열 (044-203-4420)		김덕구 사무관(044-203-4331) dkkim79@korea.kr 염현호 사무관 (044-203-4422) yumhh@korea.kr
	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김상용 (044-202-7404)		하지영 사무관 (044-202-7406) hajiyoung@korea.kr
	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김도곤 (044-201-4219)		노지훈 사무관(044-201-4223) jihunroh@korea.kr
	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장 이시원 (044-200-5710)		최장원 서기관(044-200-5715) dilemma82@korea.kr 김한울 사무관 (044-200-5722) tari12@korea.kr
	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장 박종찬 (042-481-4537)		이호중 사무관(042-481-4543) hojoonglee@korea.kr
	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 권주성 (044-200-2190)		강보람 사무관(044-200-2192) gelsomino@korea.kr
	금융위원회 구조조정지원팀장 신장수 (02-2100-2930)		김명지 사무관 (02-2100-2931) mj1011@korea.kr
	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장 조성민 (02-3145-8370)		홍석린 팀장(02-3145-8380) hong12@fss.or.kr
	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1실장 김상일 (02-787-6802)		서호철 팀장(02-787-6817) health@kdb.co.kr 김무석 팀장(02-787-6808) kmsboy@kdb.co.kr
	수출입은행 기업구조조정T/F 부장 안종혁 (02-3779-6020)		조중현 팀장 (02-6255-5403) chojh@koreaexim.go.kr
	해양진흥공사 경영기획실장 윤상호 (051-717-0610)		이석용 팀장 (051-717-0611) leesy@kobc.or.kr

「제20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」 개최

-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,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, 아시이나항공 경영정상화 추진 방안 등 논의 -

□ 홍남기 부총리는 4.23.(화) 오전 7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
「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」를 주재하여,

○ 「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추진현황 및 지정 연장」,

* 담당자: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엄현호 사무관(044-203-4422)

○ 「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」,

* 담당자: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김덕구 사무관(044-203-4331)

○ 「해운재건 5개년 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」과 함께

* 담당자: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최장원 서기관(044-200-5715)

○ 채권단이 마련한 「아시이나항공 경영정상화 추진 방안」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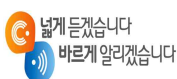
* 담당자: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실 서호철 팀장(02-787-6817)

○ 「현대상선 정상화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」을 논의하였다.

* 담당자: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실 김무석 팀장(02-787-6808)

해양진흥공사 경영기획실 이석용 팀장(051-717-0611)

붙임. 제20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부총리 모두발언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

- 제20차 「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」를 시작하겠습니다
- 글로벌 경쟁 심화, 기술발전 등으로 경쟁우위 요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**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**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되었음
 - 이를 위해서는 고통스럽더라도 과거 부실을 털어내는 **“구조조정”**과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**“혁신”**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
- 정부는 그 동안
 - ① **개별 부실기업**에 대해서는 ①대주주 책임, ②이해관계자 고통분담, ③독자생존능력 확보라는 원칙하에 **신속히 구조조정**을 추진하되,
 - ② 실업, 지역경제 위축 등 구조조정으로 **어려움을 겪는 분야**에 대해서는 **맞춤형 지원방안**을 강구하였음
 - ③ 아울러 개별기업 정리에 머무르지 않고, **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**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**패키지로 병행**해왔음
- 실제 지난 해 한국GM, 중소조선사, 금년 들어 대우조선, 한진중공업, 그리고 오늘 보고받을 아시아나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도, 이러한 구조조정 원칙을 엄격하게 견지해왔음
 - 아울러 3차례 지역대책, 9,300억원의 추경 투입(‘18.5), 4차례 목적 예비비 편성 등을 통해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에 적극 대응했고,
 - 조선업 발전전략(‘18.4), 해운재건 5개년 계획(‘18.4) 등 업종 전반의 경쟁력 제고 방안도 함께 마련했음
-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**원칙과 정책방향을 중단없이 일관되게 견지**하여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임

【 회의안건 주요내용 】

- 이러한 원칙과 방향성 하에 오늘 회의에서는
 - ①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추진현황 및 지정 연장,
 - ②조선산업 활력제고 보완대책, ③아시아나항공 정상화 추진 방안
 - ④현대상선 경영정상화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고, 서면안건으로 ⑤해운재건 5개년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상정하여 논의함

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추진현황 및 지정 연장

- 첫 번째 안건으로 「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추진현황 및 지정 연장」을 논의함
-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6곳 중 '20년까지 既지정된 군산을 제외한 거제, 통영 고성, 창원 진해구, 영암·목포·해남, 울산 동구 등 5곳에 대해 현장 실사,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토대로 '21년 5월까지 2년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연장할 계획임
- 이 지역에 대해서는 내일 발표될 추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현장에서 호응도가 높았던 긴급경영안정자금, 희망근로사업 등 금융·고용지원을 확대하고,
- 대체·보완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먹거리 발굴 등 지역경제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적극 육성하겠음

②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

- 두 번째 안건으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의 요구가 컸던 「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」을 논의함
- 작년 11월 “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”을 발표했으나, 대형사와 달리 중소조선사, 기자재업체의 경영애로가 지속되어 왔음
 - 이번에는 이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 중심으로 보완했음

- ① 단기적으로는 **고용수요에 적극 대응**하기 위해 친환경 설계 인력 등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3배(838→2,263명)로 확대하고,
- ② 가장 큰 애로로 지적된 **보증 문제를 해결**하기 위해 중소조선사 **RG 보증 2천억원**을 본격 시행하고, 제작금융 보증은 수주 계약이 있다면 조선업종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**제2·3차 협력업체까지도 실질적인 도움**을 줄 계획임
- ③ 중장기적으로는 민관학 합동 “조선산업 상생발전 협의회”를 발족하고, 글로벌 조선산업의 친환경·스마트화를 주도하기 위한 중장기적 시계의 “**친환경·스마트 미래선박 발전 로드맵**”도 年內 마련하겠음

③ 아시아나항공 정상화 추진 방안

- 세 번째 안건은 산은의 「**아시아나항공 정상화 추진방안**」 보고임
 - 산은 등 채권단은 회사의 영업 상황이 양호하고, 대주주가 M&A 동의를 포함한 **신뢰할 만한 자구안**을 제출한 점을 고려하여
 - **영구채 매입 5천억원, 신용한도 8천억원 등 총 1.6조원을 투입**하여 자본을 확충하고, 유동성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임
 - 회사도 수익성 낮은 노선의 폐쇄 등 경영개선 노력과 함께 **금년內 계약 체결을 목표로 M&A도 병행 추진**할 계획임
- 이번 사태의 핵심은 **신뢰**였음. 감사의견 논란에 따른 신뢰 훼손이 사태의 시작이었고, **신뢰할 만한 자구안** 마련이 문제해결의 기초를 제공함
 - 앞으로 자구안의 착실한 이행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여 조기에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 관계 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림

④ 현대상선 경영정상화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

- 네 번째로 우리나라의 최대 원양선사로서 **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100만 TEU급 국적 원양선사**로 나아가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「**현대상선의 경영정상화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**」에 대한 안건임
 - 현대상선은 초대형·고효율 선박 같은 **하드웨어 확충**과, 전문가 영입 조직 정비 등 **영업력 확충**을 위한 **경영혁신을 병행 추진** 중으로,
 - 실사 결과에 따르면, **‘20년 이후에는 국제선사 수준으로 원가경쟁력이 회복되고,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**될 것이 기대됨
- 산은, 해양진흥공사 등 채권단이 관련 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**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**해 나가겠지만,
 - “**제3자는 도와줄 수는 있어도 자립하게 할 수 없음**”을 업계 종사자 분들께 간곡히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음
 - 따라서, 스스로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현대상선이 당초 계획한 “**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 원양선사**”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에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

⑤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
- 다섯 번째 안건으로 「**해운재건 5개년 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**」을 서면안건으로 상정하겠음
- 정부는 작년 4월 “해운재건 5개년 계획”을 마련하여,
 - ① **화물 증대**, ② **선박 경쟁력 확충**, ③ **선사 경영안정**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왔음
- 오늘 대책은 그 진행상황을 점검하고,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것임